

이병현·이민정 8월 결혼



한류스타 이병현(43)과 배우 이민정(31)이 오는 8월 백년가을을 맞는다.

이병현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5일 “이병현과 이민정이 8월 10일 오후 6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병현이 앞으로도 배우의 분야에 충실히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연예계에서는 2010년 장동건-고소영의 뒤를 잇는 또 한 쌍의 텐스타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2006년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이병현과 이민정은 한 차례 헤어진 후 작년 초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작년 8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개 연인으로 데이트를 즐겨왔다.

/연합뉴스

2013 미스코리아 진 유예빈씨



2013 미스코리아 진에 유예빈(21·경상대 의류학과)씨가 선정됐다.

유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 영예인 진에 올랐다.

한지은(21)·김희숙(22)씨는 각각 선, 김민주(25)·한수민(22)·최혜린(20)·구본화(21)씨는 미스코리아 미에 뽐렸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김동건 아나운서는 공로상을 받았다.

올해로 57회째를 맞은 행사에서는 텔런트 이윤지와 아나운서 김형숙이 MC를 맡았으며, 55명의 본선 참가자들이 자웅을 겨뤘다. 그룹 샤이니와 헬로비너스는 축하 무대를 꾸몄다.

/연합뉴스

‘굿바이 케미칼스’ 출판기념회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시민생활환경회의 20주년 기념 ‘굿바이 케미칼스’(대표집필 김강열)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관광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에서는 지난 4일 어들란 컨트리클럽에서 회원사 대표, 흥인원 주광주 중국 총영사, 윤석영 관광공사 광주전남권협력단장 등 유관기관 임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생활 게시판

화족

▲허영철(전 해남 부군수)·김정순씨 차남 재호(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군 임종하(금호타이어)·최순이씨 차녀 세나(고양시 국체고 행정실)양=8일(토) 낮 12시 40분 광주흘리네 이인호텔 3층 로즈홀.

▲장봉환(광주 법무사)씨 장남 용훈군 김용길씨 차녀 수희양=8일(토) 낮 12시 서울 천주교반포성당.

▲조선자씨 장남 김경환군 정춘식·김성자씨 차녀 명희(광주일보 편집국)양=9일(일) 오후 1시 STW웨딩컨벤션 3층 메리끌드홀.

▲이승기(삼성건설 회장)·이광숙씨 차남 경익군 이남근(조선대 교육대학원장)·김연희씨 장녀 민화양=9일(일) 낮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동창동문회

▲고흥 영주중 22회 전국모임(회장 김준석)=8일 오후 7시 대부도 011-

624-7242.

종친회

▲진주 강씨 청·정년회 월례회 모임=10일(월) 오후 7시 20분 동구 금남로 5가 ‘동해바다’ 011-625-0900.

▲범죄씨 대종연합회(회장 최남용) 2013정기총회=11일(화) 오전 10시 30분 동구 지산동 명선현 한정식 010-7312-129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유학허브 광주지사 조기유학설명회=개별 상담 및 무료(SLEP)유학시험응시기능 NC(구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선착순 접수) 062-263-3434.

▲시민 학생의 ‘인성함양’과 ‘성찰’

“갈고 닦은 일본어로 고향의 매력 알릴 것”

2013 F1 87세 최고령 자원봉사자 영암 박정화 응

포뮬러원(Formula One) 며신들이 펼치는 세계 최대 규모 레이싱 경주인 ‘2013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F1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4월15일부터 5월27일까지 43일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500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1303명이 신청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정화(87) 응은 자원봉사자 500명 중 최고령 참가자로 벌써 4번째 선발됐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암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화 응과 자동차와 인연은 반세기 넘는다. 1926년 영암에서 태어난 박 응은 당시 차량이 많지 않았지만 집 근처에 택시회사가 있어 차와 금방 친숙해졌다. 쇠로 만든 커다란 차 훔자서 움직이는 것이 신기해 하루에도 몇 번씩 쫓아다녔다는 박 응. 이때부터 자동차는 삶의 일부가 됐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일했다. 세월이 흘러 미수(米壽)를 앞두고 다시 F1대회에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반기운 인연도 만났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시 온 가족이 백령도까지 피난을 떠났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화장실, 해병대 복무 시설 사진과 기록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런데 F1대회장에서 우연히 만난 군대 후임병을 만나 과거 기록을 접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를 겪으며 자연스레 일본어를 익힌 박 응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F1대회를 찾은 일본인들에게 경기장 안내하는 것은 물론 ‘영암사람’으로서 고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화 응은 F1대회가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매년 대회를 개최하면서 관광객도 증가하고 대회 수준도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1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전 남에서 개최하면서도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영암의 매력을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해 이쉽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알리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영암에 있는 월출산 뿐만 아니라 왕인 박사 유적지 등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장소에 대해 체력이 허락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F1대회를 위해서는 관광객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흘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F1대회 성공을 위해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F1 대회와 영암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사자들이 F1대회를 즐기고 영암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원봉사자들이 내일의 손님이 될 수 있도록 식사나 숙소 등 작은 부분에서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사직대제 600년 전통 잇습니다

장두석 사직대제집행위원장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식으로 광주에서는 지난 1997년 까지 거행됐다가 잠시 명맥이 끊겼다. 이후 2008년 다시 복원됐다.

광주 사직대제는 1394년 사직단이 설치된 후 이듬해부터 열리다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해 사직단이 관군의 훈련장으로 이용되며 중단됐다. 1960년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며 제단이 철거됐으나 1993년 광주시가 동물원을 이전하고 다시 증축했다.

사직대제는 땅을 관掌하는 사신(社神)과 농사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에



장두석(76·사진) 집행위원장은 “사직대제는 광주 시민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통으로 땅과 곡식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행사다”며 “빛고을 광주가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형의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문화자산

을 보존해 나가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산구 ‘보훈의 달’ 유공자 시상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최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광산구 보훈단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보훈 유공자 시상 및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한상이(국경회) 광주시지부 광산지회 김인우 씨 등 8명이 보훈 유공자로 선정돼 광산구청장을 받았다. /최승렬기자 srchoi@

이건희 삼성 회장 장모

목포 출신 김혜성씨 별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어머니이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모인 김혜성 씨가 5일 별세했다.

원불교에 따르면 원불교 신도인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별세했다. 세수 90세, 법령 50년 3개월, 별인은 8일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목포 출신인 김씨는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 슬하에 홍라희 관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홍석규 유보광 회장, 홍리영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 등 4남2녀를 둘렀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대 건설”



개교 61주년 기념식

전남대학교 개교 61주년 기념식이 5일 오후 4시30분 전남대 응지관 컨벤션홀에서 거행됐다.

6월 9일 개교 61주년을 맞는 전남대는 이날 교직원과 동문, 지역민 등 400여 명을 초청해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교직원과 동문 등 용봉인의 학회를 폐지하기 위해 개교

기념식과 동문 초청 ‘용봉인의 밤’ 행사를 같은 날 함께 치렀다.

이날 기념식은 용봉학술상, 용봉인 영예대상,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 시상식과 장기재학 교직원 표창, 도전·기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병문 총장은 61주년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책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대를 건설하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 학문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자리가 꿈과 희망으로 충만한,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싶어 하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전남대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고흥 해양물산 이이근 대표

자활센터에 차 구입비 1400만원

이이근(49) 해양물산 대표가 최근 고흥지역 자활센터 차량구입비 1400만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흥지역자활센터는 고흥군으로부터 청소 등 6개의 자활사업을 위탁받았으며, 현재 40여명의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 일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특산물품질관리사업단을 신규 발족해 견디시마 선별작업을 맡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금년 신령리 명천마을에서 15년 동안 미역 가공업을 해오다 현재 영어조합법인 명촌어촌에 경영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 대표는 고흥지역 자활센터가 자체 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기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주각중기자 giju@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생활 게시판

화족

종친회

모집

알림

동창동문회

고향 영주중 22회 전국모임(회장 김준석)=8일 오후 7시 대부도 011-

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무관·누구나 수강 가능 무료) 010-3625-5433.</